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化粧文化) 비교연구

김 희 숙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A Comparative Study on Women's Cosmetic Culture of Korea and the West in the 20th.

Hee-Sook Kim
Dept. of cosmetology, Dong-ju college

ABSTRACT

The study is aimed to analys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to compare the changes of the cosmetic culture in Korea and the western countrie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osmetic industry in the 20th century.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has kept on changing, adopting the new western style make up. These changes were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current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the developments of the cosmetic industry.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Korean cosmetic culture and that of Western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ly,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came out after Korean War through the import of western movies.

Secondly, at the beginning of accommod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beauty, the standards of beauty were confused with that of traditional make up.

Thirdly, in terms of the history of costumes in the western cosmetic culture, the trend was feminine and curve lineal style in the 1910s, straight and young style in the 1920s. Young, elegant, curve lineal style and straight-line style replaced among themselves in every 10 years and the cycle became more rapid after the 1970s and there were diversity in the cosmetic culture affected by the postmodernism.

Fourthly, the cosmetic culture of "total fashion"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Fifthly, the make up of Korean and that of western countries are not only a way to express of aesthetic desire for beauty but sanitary management and it is a kind of an expansion of value for

management for an inner self.

Now is the time to refuse the attitude of accommodation of the western cosmetic culture without any consideration. We need to rediscover our traditional cosmetic culture and cultural distinctiveness and try to mix them with the western cosmetic culture in order to develop our own peculiar style which will be able to let Korean design remain i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grow further.

Key Word : Cosmatic culture(화장문화)

I. 서론

현대에 와서 화장품 관련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화장품은 일반에게도 널리 보편화되어 복식과 화장,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되는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화장품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 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면서 화장품은 폭넓은 연령층에게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자발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의 화장이나 머리 모양, 의복형태 등 문화적으로 규정된 외모의 차이를 기초로 사람을 분류하고 묶는 것을 문화적 범주(cultural category)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범주를 통해 그 문화의 가치 규범과 구성원을 구별하고 이해하고 있다¹⁾. 이때 문화적 범주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매개물은 외모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화장과 복식이다.

이와 같은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 관심 뿐 아니라 실용학문으로서의 학문적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문화는 서양 화장품과 화장방법을 한국인의 얼굴 체형이나 신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몰개성화되고 획일화를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의 코디네이션과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문화 영역에 많은 영향을 준 서양 화장문화의 발전과정과 국내 화장문화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화장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체계화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1900~1998년의 한국과 서양의 시대별 화장문화를 비교하고, 복식과 화장문화의 조형적인 연계성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올바른 화장문화 정립을 위한 한국적 화장을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00~1998년까지 발간된 국내의 화장문화 관련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화장과 헤어스타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II. 화장문화 배경에 관한 고찰

1. 한국여성의 화장문화 배경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는 서양화장이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수용, 변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수천 년을 지속하여 온 우리 여성의 고유 화장은 조선시대 말 서양과의 문화적 접촉이 시작된 이래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해방전(1900-1944)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²⁾을 통하여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점차 증

1)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248.

2) 유수경, 한국여성 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p.41.

가되고, 여성활동 범위의 확장과 아울러 복식에 있어서는 장의 폐지, 의복의 개량 등이 함께 일어났다. 1920년대에는 새 가정생활, 위생, 직업여성, 종교, 사회사업, 새로운 결혼관, 문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화운동이 전개되어 신여성의 가치관 정립에 객관적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다.³⁾ 이 당시의 화장품 산업은 갑오개혁 이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화장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탄생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각국으로부터 외제 화장품이 들어오며 따라 결국 국산 화장품도 정식으로 정부의 등록을 받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장품 생산은 백분 생산으로 시작하여 색조 화장품, 두발 화장품 순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덜어 파는 분매가 화장품 유통의 근간을 이루었다.

근대화 이전 (1945~1970)에는 8·15 해방과 6·25 사변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중 하나가 신분서열과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고⁴⁾,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발달과 함께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당시의 화장품은 1950년대는 남성들의 포마드⁵⁾, 1950년대 후반의 메이컵 화장품, 염모제와 파마약⁶⁾ 등이었다. 이 당시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61년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을 실시하여 국산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유통방식은 1960년까지 주로 도매상을 통하여고, 1962년부터 새로운 유통경로가 본격적으로 보

색되고 있었는데 크게 나누어 체인 스토어 제도와 방문판매 제도였다.⁷⁾

고도 성장기 (1970~1998)에는 유신정권(1972) 수립, 석유파동(1979), 광주민주화 운동(1980) 등이 일어나 사회전체의 불안과 불황이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국민생활은 안정과 풍요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내적인 생활태도가 나타났다. 여가에 대한 중시성향이 높아졌고, 칼라 TV 보급, 교복자율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패션 안목이 높아지게 되었다⁸⁾. 1990년대는 소비가 개인화되었고, 환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으며, IMF 시대 이후부터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구매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화장품 산업은 성숙기 시장에 돌입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소비자층이 확대되면서 상품기획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¹⁰⁾.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화장품 업계도 환경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환경 친화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화장품 산업의 유통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방문판매, 광고형 할인매장, 편의점, 전문점 등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서양여성의 화장문화 배경

1900년부터 1945년까지에는 제1·2차대전과 세계공황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 3) 정세현, "한국여성의 신문화운동: 1920년대 초기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제10권(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356.
- 4)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변화",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해방 40년 한국 현대 사회사의 재구성』,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5, pp.33~61.
- 5)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p.215.
- 6)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p.92.
- 7) 한국화장품 공업협회, 전계서, 1998, p.119.
- 8) 김혜옥·유송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제 26집. 1996 p.292
- 9) 신한리뷰, 1998, 봄, p.22.
- 10)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p.89.

생기고, 예술적으로는 아르누보와 신조형주의, 기능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또한 패션업계에서 중요한 변화로 기성복 패션디자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¹⁾ 이 시대는 의학분야의 발전으로, 화장품에 과학을 도입하였고, 파리와 헐리우드가 유행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 화장품 업계가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였으며 대규모의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였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는 동서의 이념의 대립이 첨예하던 시기로 미국이 경제, 문화적인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가 유행하였으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대중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¹²⁾ 화장품 산업에서는 소비자 심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화장품 광고시장이 발달되었다. 또한 196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구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틈어져 스타일이 창조되었다. 유통분야에서는 Avon을 선두로한 방문판매 업체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1970년부터 1998년까지는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유니섹스 등의 경향을 보였다. 1984년 말부터 등장한 앤드로지니어스 룩이 지속적으로 유행되었고, 1990년대에는 경기 침체, 걸프전의 영향으로復古적 향수를 표현하는 경향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 경향과 공존해서 나타났다. 또한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

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크게 자연주의(natural)와 이국풍의 민속주의(ethnic), 복고주의(retro), 재활용주의(recyclic), 테크노풍의 미래주의(techno)로 구분되어진다¹³⁾. 화장품 산업은 기술진보로 인해 각종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었으며, 환경친화 제품도 다수 등장하였다.

III. 한국화장문화와 서양화장문화의 조형적 분석

1. 분석기준

본 연구자가 10여년 동안 대학에서 화장과 헤어 스타일을 가르친 경험과 미용 교재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화장의 조형적 요인은 눈썹 형태, 아이셰도우 형태, 인조속눈썹 형태, 아이라인 형태, 볼화장 형태, 입술 형태, 질감이고,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요인은 부피감, 질감, 색상, 대칭과 비대칭이 있다.

2. 한국화장문화의 조형적 분석

(1) 화장

근대 이전 우리나라 화장문화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매우 높은 미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민족이다.¹⁴⁾ 둘째, 화장문화의 이원화 현상이 존재하여 화류계 여성들의 짙은 화장과 일반여성의 옅은 화장으로 분류된다.¹⁵⁾ 셋째, 옛날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얼굴형에 따라 가려졌다.¹⁶⁾ 넷째, 국내화

12) Russell, Douglas A,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83, p.450.

13)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전계서, p.242.

14) 전완길의 8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5, p.46.

15)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95, p.378.

16) 주매숙, 인물화에 표현된 얼굴의 미연구, 고려대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1994, p.47.

장문화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간결의 미'를 추구했다¹⁷⁾. 다섯째, 우리 민족은 흰 피부를 좋아하고 숭상했다.¹⁸⁾

근대이후인 190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개항과 한일합방에 따라 쪽머리와 댕기머리 대신에 퍼머가 유행하고, 분이 뽀얗게 발라지고 입술 연지의 새빨간 색깔이 진해지고 향수의 향내와 비누의 향내가 강렬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 화장법과 신식 차림은 적잖은 반발에 직면하였고 대중화의 한계를 보였다.

1940년대에는 8·15광복과 함께 서양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옴에 따라 미용에 대한 의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헤어스타일과 복식만이 급변했을 뿐이었고, 일반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자제는 펍 소극적이어서 광복후 일본과 유럽 등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기초미용의 마사지 기법이 국내에 보급되는 정도였다¹⁹⁾.

1950년대 화장문화는 화장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 차원에 머무는 정도였다. 메이크업은 피부톤을 약간 밝게 하고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그리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었으며, 여기에 긴 속눈썹을 붙이고 아이 라인을 길게 빼서 그려 줌으로써 눈매를 강조했다. 또한 눈화장을 할 때는 아이홀에 살구빛이나 살색 아이새드를 바르고 안쪽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욱 밝은 색을 발라 입체감을 살리기도 하였다.²⁰⁾

1960년대에의 화장문화는 일본식 대신에 미국과 유럽풍의 신화장이 유입되었다. 화장품 생산과 품목도 많은 변화를 보여 화장품의 국산화가 늘어났으며 짙은 색조 화장과 매니큐어의 사용도 전에 없는 변화 중의 하나였다.²¹⁾ 그리고 당시 미술계의

경향이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기 개성을 표출시키기 위해 얼굴 윤곽과 눈, 코, 입을 강조하여 현저하게 노출시키는 화장법, 이른바 입체 화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입체화장이 생활화되어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하이라이트 볼 화장도 유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방적인 화장법에서 나아가 동양적 화장법을 시도하였는데, 자연스러운 피부, 가늘고 짧은 눈썹, 핑크·오렌지색 입술 등으로 한국여성에게 맞는 화장법들이 유행하였다.

Color TV 방송의 시작으로 색 사용에 익숙해진 1980년대는 화장품 성장의 시대로 색이 강세를 보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짙은 눈썹, 빨간 립스틱, 브라운계의 아이쉐도우로 표현한 보이쉬(boyish)한 이미지가 유행을 주도했으며, 입체적인 서양의모의 선호로 눈을 크고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표현하였다. 또한 메이크업에 스킨케어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과거 스타일의 융합과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유행하였으며, 도톰한 눈썹, 브라운색 입술 등으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퍼플계 에올로지풍이 유행하였으며, 오리엔탈 이미지 계열의 아이쉐도우, 미래주의를 표현하는 광택의 아이웨도우도 함께 유행하였다.

(2) 헤어스타일

1900년대부터 1940년대에는 귀밑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치켜올려 빛은 팜프도어가 유행이었고, 얼마 후 옆가리마를 타서 갈라 빗어 머리 뒤에다 넓적하게 틀어 붙이는 트레머리가 유행하였다. 트레머리는 1910년대까지 여학생간에 인기 있는 헤어스타

17) 전완길, 한국 화장문화사, 열화당, 1994, p.57.

18) 김은주, 한국전통 화장풍속사에 관한 연구, 세종대 의상전공, 복식학회지 13호, 1989, p.39.

19)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p.463.

20)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전계서, p.412.

21) 미용회보, 대한미용사협회, 서울, 1988 8월호, p.40.

일이었는데, 점차 아래 분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가운데 가리마에 땡기를 드리우는 서민 헤어스타일로 복귀하였다. 둘째 머리는 머리를 뒤에서 한 가닥으로 굽게 따서 돌레에 터번 모양으로 둘러 머리위에 틀어 엮고 핀을 꽂은 머리로서 소수층에서 유행되었고, 1926년경에는 머리를 뚫아내리는 학생들에게 ‘칩지머리’라는 것이 유행하였다. 1920년대 일부에서 유행했던 단발형의 헤어스타일이 점차 늘어나 단발 미인, 모던 걸이라는 신용어가 나올 만큼 단발이 오래 지속되었고, 얼굴돌레의 웨이브를 밖으로 올리는 링고스타일도 유행하였다.

1950년대에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서양식 패션이 일반 여성들 사이에도 퍼져나갔다. 이 당시 여성들은 단발형의 우지마끼(안말음)²²⁾과 소데마끼(바깥말음)²³⁾를 선호하였다.

1960년대는 머리 모양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부피감 없는 올림머리와 긴 직모가 유행하였고, 대표적인 스타일은 포니테일, 로맨스형, 프렌세스 스타일, 세실컷트, 바가지 머리 등이 있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그냥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시대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발달 사순풍을 모방한 여러 헤어 디자이너들이 각국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뉴 트렌드(new trend)의 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단정하고 딱딱하게 고정된 머리형에서 머리결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자연스런 퍼머 스타일과 부드러운 질감의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었다.

1990년대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시대이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헤어

스타일이 정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드러움과 볼륨을 강조하는 헤어스타일과 숏컷트가 유행하였다. 또한 인조가발의 파격적인 색상이 등장하였고, 염색이 다양화 되었으며, 여러가지 스타일이 공존하여 유행하였다.

3. 서양화장문화의 조형적 분석

(1) 화장

1900년대의 대표적인 패션은 깁슨 걸(gibson girl) 실루엣이었고, 깁슨 걸은 미국에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그녀의 헤어스타일, 의상이 당 시대 대표적인 유행 선도자의 모습이였다.

1910년대 영국, 미국, 프랑스의 화장의 주된 흐름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점잖은 화장이었다. 1910년에는 러시아의 디아 갈레프²⁴⁾ 발레단의 파리공연에 의해서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 동양적이고 신비스럽고 강한 색조가 인기를 끌게되어 화장의 색조도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깊은 아이셰도우, 작은 입술, 붉은 불연지 등이 이 당시의 화장기법이었다.

1920년대에는 악마같은 요염한 모습에 화장은 두껍고 입술은 크게, 머리는 자다 깬 듯이 헝클어진 스타일인 ‘vamp look’이 유행하였으며, ‘vamp look’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풍겨주는 천진난만형의 베이비 룩(Baby Look)도 유행되었다. 1920년대의 메이크업은 여성의 이상적 미를 표현하는 인조 미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1930년대는 조화와 균형의 개성미가 돋보이던 시대이다. 이 시대의 화장은 경제적 불황과 침체의 어두운 현실의 영향을 받아 진지하고 성인다운 세련됨이 강조하여 화장도 성숙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22) 안말음 : 머리끝 부분을 안쪽으로 둥글게 말아 모양을 만드는 것.

23) 바깥말음 : 머리끝 부분을 바깥쪽으로 뺄어지게 모양을 만드는 것.

24) 참고 : 1909년 니진스키와 세르게이의 아질레프가 인출한 러시아 발레단은 “블세”, “패트루시카”, “봄의 축제” 등 동양적 분위기의 작품을 파리에서 공연하였는데 레옹 바스크의 동양적인 신비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채의 무대 장식과 무대 의상은 유럽의 복식, 실내장식 등 장식예술 진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오리엔탈 붐을 일으켰다.

표현하였는데, 정교하고 가늘게 그린 긴 눈썹과 크고 선명한 입술이 강조점이 되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획일적으로 모방되었다.

1940년대는 2차대전을 치르면서 여성들의 유능함과 성숙성이 강조되어, 화장 또한 크게 표현된 입술과 힘차게 그려진 두꺼운 눈썹으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5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문명개발의 시기였다. 또한 이때부터 영화, TV, 카메라의 등장으로 색을 중요시했다. 화장은 밝은 색의 피부톤에 약간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했으며, 눈썹은 두껍고 진하게 표현하고 속눈썹을 길게 붙였다. 아이라이너도 길게 그리고 얼굴의 윤곽을 매우 강조했다. 입술은 새빨간색을 발랐고 마릴린 먼로의 영향으로 관능적인 화장이 유행하였다.

20세기 전반에는 이상적인 여성미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모방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에 대한 기존의 가치 개념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화장이 사회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미의 표출 수단이 되었다. 1960년대의 화장은 인조 속눈썹 등으로 극단적으로 강조된 눈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기괴하며 사이키델릭한 표현을 하였다. 또한 이 시대부터 잡지가 미래의 패션 경향과 유행의 방향을 미리 예측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²⁵⁾

1970년대는 네추럴한 피부색과 표준형 눈썹으로 자연스러운 화장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쾌락주의와 육체 자체에 대한 숭배의 경향으로 여성 육체의 상품화를 초래하여 여성의 연령을 점점 저하시켰고 사춘기 이전의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과거에 대한 복고풍의 영향으로 색시하면서도 진한 화장이 유행하였다. 여성들도 과거에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일반직과 전문직에서 남자와 차별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성적인 화장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 초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곧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인식되었고, 단순한 겉모양만의 아름다움보다 한결음 나아가 발랄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라는 논리적 사고가 비로소 사회상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부색은 투명하게 표현하였으며, 자연에서 보여지는 색상이 유행하였고, 미래지향적인 대담한 화장과 에콜로지풍이 병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2) 헤어스타일

190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S자 실루엣의 헤어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긴기장이 유행하였고 팜프도어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단지 성적 매력과 권위 표시로 장식되었던 헤어스타일에서 단순하고 손질하기 쉬운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⁶⁾

1920년대의 여성은 사회 진출로 인하여 활동하기 쉬운 헤어스타일을 원하였기 때문에 단발머리와 Eton 컷이 유행하였다.

1930년대가 되어 경제 공황이 오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등장하여 1920년대의 극단적인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은 모습을 감추었다. 이 당시에는 백금색의 염색도 유행하였다.

1940년대는 New Look의 영향으로 두상을 되도록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헤어의 부피를 작게 표현한 것은 New Look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1940년대 후반에는 세미 쇼트(short) 시대이고, 붉은색 염색머리도 유행하였다.

195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흐름은 긴머리에서 짧

25) Robin tolmach Lokoaff & Raquell Scherr, Face Value the politics of Beauty Rouhedge Kegan Paul, 1984, pp.98~100.

26)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p.50.

은 머리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1950년대의 10대 소녀들은 긴 머리를 뒤에서 묶어서 아래로 드리운 pony tail 스타일을 즐겨하였고, 머리 전체를 짧게 하여 곱슬거리게 한 poodle cut, 이마와 뺨에 납작하게 붙인 곱슬 애교머리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1960년대는 높고 볼록한 머리 모양이 유행하여 많은 여성들은 뒷부분에 공기를 넣은 것 같이 과장된 헤어스타일을 했다. 이 당시에는 기하학적 짧은 컷과 단발, 긴머리가 공존하였으며 벌집머리, 기하학적인 비달사순 컷트가 유행하였다.

1970년대의 머리 스타일은 더 다양해졌다. 70년대 초 잘 손질된 머리는 유행에 뒤진 것으로 여겼으며, 여성들은 바람머리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호했다. 1975년에는 복고풍의 유행이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어서 1930년대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컬

진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웨이브와 핑크축의 극단적인 파상모와 직모 등이 유행하였고, 염색색상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헤어스타일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로는 spiky hair, punk hair, 다이아나비 헤어스타일 등이 있다.

1990년대 와서는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되어, 헤어스타일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었다. 헤어칼라링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자연스러운 양감과 극단적인 양감이 공존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표 1>과 <표 2>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화장과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요소를 한국과 서양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1> 한국과 서양의 화장에 대한 조형적 비교

	한 국	서 양
1900년대		· 김순걸(gibsongirl) 실루엣과 함께 자연스러운 화장 유행
1910년대	· 양장과 함께 신식 화장, 인위적인 느낌의 화장 방법 도입	· 오리엔탈적인 화장 (깊은 아이셰도우, 작은 입술, 붉은 볼연지)
1920년대	· 뺨안분과 진한입술, 강한 향의 향수	· Vamp Look, Baby Look과 함께 인조적인 화장(흰 피부색, 가짜 속눈썹, 뚜렷한 입술)
1930년대		· 신비스럽고 여성스러운 화장(창백한 피부, 가늘고 긴 눈썹, 푸른색마스카라, 두꺼운 입술)
1940년대	· 기초미용기법 도입	· 강렬하고 가식적인 화장(두꺼운 눈썹, 직선적인 입술, 두꺼운 화장)
1950년대	· 인위적인 화장 (두꺼운눈썹과 인조속눈썹, 핑크빛 입술, 밝은 피부톤)	·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화장 (풍만한 곡선의 눈썹과 관능적인 눈 화장, 붉은 입술)
1960년대	· 입체화장의 도입 (광택있는 피부표현, 아이셰도우, 불화장사용, 자연스러운 피부톤)	· 인위적인 화장(과장된 속눈썹), 젊은 분위기의 화장 (창백한 입술)
1970년대	· 입체화장의 생활화 (다양한 색채사용, 하이라이트 볼 화장) · 동양적 화장법 시도(자연스러운 피부, 가늘고 짧은 눈썹, 핑크와 오렌지 빛 입술) · 의상과 화장이 함께 유행	· 자연스러운 화장 (자연스러운 피부, 옅은 피부) · 표준형 눈썹
1980년대	· 보이쉬(boysh) 이미지 유행 · 색채화장의 급격한 증가 · 입체적인 서양 화장법 재도입(길고 짧은 눈썹 직선적 입술)	· 색시하고 진한 화장 ·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흰 피부와 붉은 입술) · Androgynous 화장 (눈 강조, 어두운 립스틱)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스타일의 융합,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도톰한 눈썹, 브라운색 입술) · 에콜로지, 오리엔탈리즘, 광택색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화장 (자연스러운 피부, 옅은 피부) · 표준형 눈썹
--------	--	--

<표 2> 한국과 서양의 헤어스타일 대한 조형적 비교

	한 국	서 양
1900년대	· 팜프도어	· 큰 부피감의 자연스러운 웨이브 : 팜프도어
1910년대	· 트레머리 · 둘레머리	· 단순하고 손질하기 쉬운 합리적 형태
1920년대	· 첩지머리 · 단발머리	· 직모단발 : Eton cut
1930년대	· 단발머리 · 퍼머머리	· 양감이 적고 부드러운 웨이브, 백금색 염색머리
1940년대	· 링고스타일	· New Look의 영향 · 양감이 적은 부드러운 웨이브(금색, 붉은색 염색, 세미 커트)
1950년대	· 풍성한 스타일 · 안팔음 바깥팔음 유행 : 터크테일 스타일	· 조형적 양감의 부드러운 웨이브 · 짧은머리에서 긴머리로 : 포니테일 스타일, 푸들 커트
1960년대	· 부피가 없는 긴 직모 · 미니스커트의 유행고 함께 상고단발, 기하학적인 컷 유행 · 포니테일, 프렌체스 스타일, 세실컷	· 뒷부분을 부풀린 과장된 스타일 · 기하학적 짧은 컷, 단발, 긴머리 공존 : 벌집머리,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인 컷
1970년대	· 자연스러운 짧은 직모나 바디퍼머 · 비달사순의 기하학적인 컷	·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와 직모 : 복고풍
1980년대	· 부피감없는 직모나 부드러운 웨이브 · 긴머리, 단발 유행, 부분염색 시작 · 2단층 보브 스타일	· Androgynous 영향 · 자연스러운 웨이브, 극단적인 파상모 · 긴 기장, 단발, 극단적으로 짧은머리 공존 · 파격적인 염색 · spiky hair, punk hair, 다이아나비 헤어스타일
1990년대	·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헤어 스타일 · 부드러움과 볼륨 강조하는 짧은 머리 · 인조가발, 염색이 다양화	· 자연스러운 양감과 극단적인 양감의 다양한 스타일 · 염색의 중요성 증가

IV. 이미지 연출에 따른 한국적 화장기법 연구

개화기 이후의 수용되어온 서양식 화장법은 서양식의 미의 기준에 따르면서 동양인의 골격과 피부 색깔을 무시한 단순한 모방의 차원이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화장패턴은 세계화, 국제화 추

세와 더불어 서양 문물에 영향을 받아 물개성화 획일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다양한 인종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한국여성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한국미의 정형을 표현할 수 있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통한 이미지 연출에 따라 계란형 얼굴의 20대중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례를 제시하

였다.

작품 I. 한국적 이미지 : 우리고유의 조형적 특이성을 살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서 한국적 디자인을 남기고자 했다. <사진 1>



<작품 1> 한국적 이미지

작품 II. 한복, 양장에 조화되는 이미지 : 곡선적인 분위기의 화장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잘 반영하여 부드러움과 편안함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사진 2>



<작품 2> 한복, 양장에 조화되는 이미지

작품 III. 중성적 이미지 : 80년대의 중성적 화장을 표현하고 남성복 요소로 여성복에 응용한 의상 분위기로 연출했다. <사진 3>



<작품 3> 중성적 이미지

작품 IV. 내츄럴리즘 이미지 : 자연스러운 화장 색조와 선의 흐름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과 동양적인 요소를 내포하도록 하였다. <사진 4>



<작품 4> 내츄럴리즘 이미지

작품 V. 소피스트케이트 이미지 : 활동적인 여성상으로 세련되고 이국적인 정취가 풍기도록 감성적인 눈매와 입술화장을 강조하고 도회적이고 세련미를 가진 전문적 여성의 느낌을 무채색의 의상과 함

게 도회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사진 5>



<작품 5> 소피스케이트 이미지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화장품 산업 발달에 따른 한국과 서양 화장 문화의 변천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국 화장문화는 수천년을 지속하여 고유전통화장에서 새로운 서양화장을 수용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화장문화의 형성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화장품 산업의 발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 화장문화와 서양화장문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화장문화는 6·25 전쟁후 서양 영화의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미군주둔으로 인한 서양식 문화의 급속한 전파로 인하여 서양의 뚜렷한 1910, 1920, 1930, 1940년대의 화장패턴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다양하게 모든 패턴이 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양의 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의 기준이 혼란스러워 서양의 입체적인 모습을 모방하는데 급급하였고, 1950년대는 눈을 크게 보인다는 장점으로 청색의 인위적인 아이셰도우 색

깔과 부자연스러운 화장이 유행했으나 1970년대부터 점차 동양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셋째, 서양 화장문화에 있어 20세기 복식의 유행의 역사에서, 1910년 여성적·곡선적, 1920년 직선적 젊음 강조 등과 같이 10년을 주기로 엘레강스, 젊음, 곡선과 직선의 반복이 계속 이어졌고, 1970년 이후로는 유행주기가 빨라지고 포스터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화되어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장문화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년대는 뚜렷한 대표적 화장의 형태(패턴)가 있고 1970년부터는 과거에 나타났던 양식을 중심으로 예술적 표현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독특한 개성의 추구를 하였다.

넷째, 토탈패션으로써의 화장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1920년대의 복식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화장의 직선적인 눈썹과 입술라인, 헤어스타일의 짧은 단발머리는 짧고 발랄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일시켰고, 1930년대의 아치형의 눈썹과 꽃봉오리 같은 둥근 입술라인 웨이브진 단발 헤어스타일은 1920년대에 비에 여성스럽고, 세련된 복식과 조화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 나타난 인위적인 속눈썹과 어린이와 같은 무표정한 화장, 기하학적인 눈화장은 젊음의 대담하고 실험적인 의상의 전개와 단순한 헤어스타일등으로 독특한 개성을 이루었다.

이상의 결론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자는 개성적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는 화장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화장은 의상과 상황, 목적, 시간, 장소에 따라 조화되어야 한다. 동양인은 특히 빨강 기미의 보라색에서 노랑기미의 초록색에 이르는 색상 범위에 있는 따뜻한 색상이 우리의 피부색과 무난하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골격에서 보면 평면적이기 때문에 명도와 채도가 높고 필이 있는 아이셰도우 색상을 자제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장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평면적인 일

굴을 부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주는 것보다 눈, 코, 입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화장은 색상이 주는 감정으로 인해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령별로 적합한 화장품의 색상 선택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현대의 선진국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성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화장품 산업도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무분별한 모방에 불과한 서양화장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전통화장문화를 회복하고 문화적 개성을 찾아 서양 화장문화와 전통화장문화를 융화시켜 우리 고유의 조형적 특성을 살린 메이컵과 헤어스타일 개발에 일조를 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적 화장문화를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옥 · 유송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제 26집, 1996.
-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변화”,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해방 40년 한국 현대 사회사의 재구성」, 서울 : 도서출판 일념, 1985.
- 김은주, 한국전통 화장품속사에 관한 연구, 세종대 의상전공, 복식학회지 13호, 1989..
-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미용회보, 대한미용사협회, 서울, 1988 8월호..
- 백영자의외 1명,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 신한리뷰, 1998, 봄.
-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유수경, 한국여성 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 전완길, 한국 화장문화사, 열화당, 1994.
- 전완길외 8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5.
- 정세현, “한국여성의 신문화운동 : 1920년대 초기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제 10권(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조호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95, p.378.
- 주매숙, 인물화에 표현된 얼굴의 미연구, 고려대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1994.
-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 한국장업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86.
- 한국화장품 공업협회, 전개서, 1998.
- Russell, Douglas A,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83.
- Robin tolmach Lokoaff & Raquell Scherr, Face Value the politics of Beauty Rouledge Kegan Paul.